

##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전진하는 사회주의, 승리하는 우리 위업의 상징인 건설혁명의 불길높이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가는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조국번영의 거창한 진군길에 수도건설의 장엄한 퇴성이 또다시 울려 퍼지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전면적부흥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국가의 무진한 지력과 휘황한 래일에 대한 인민의 확신을 백배해주며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사업인 화성지구 2단계 건설착공식이 2월 15일에 진행되였다.

건설의 대격전을 선포하게 될 착공식장은 우리 인민이 제일 반기는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운 당의 뜻을 충성과 애국의 실천으로 받들어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변화를 다시금 보란듯이 펼쳐갈 군민건설자들의 격양된 투쟁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리상 실현의 위대한 개척자, 창조자가 되시여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건설자들은 당의 부름에 언제나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완벽한 실천으로 화답해온 애국충성의 긍지높은 전통을 이어 새로운 화성속도, 화성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애국애민의 숭고한 경륜을 수놓아가는 우리 당의 열사복무의 세계를 인민의 리상거리의 눈부신 자태로 펼칠 확고부동한 의지를 담아 결사관철의 구호들을 우렁차게 불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단추를 몸소 누르시였다.

순간 건설장전역을 뒤흔드는 장쾌한 퇴성에 이어 축포탄들이 터져오르고 참가자들이 웨치는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국가의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창조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기 위한 장엄한 대건설투쟁에 충성한 기세로 또다시 총열기해나선 전체 건설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화성지구에 련속적으로 전개되는 건설대전은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막아서는 시련과 도전을 과감히 딛고 우리 식, 우리 힘, 우리 손으로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조선인민의 불가항력적기상을 자랑찬 변혁적실체로 뚜렷이 실증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열광의 환호를 터치였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덕훈내각총리가 착공식연설을 하였다.

그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사회주의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중대

사항이며 우리 당이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본과업들중 첫째가는 목표이라고 하면서 올해 수행하여야 할 평양시 1만세대건설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안겨줄 웅대한 계획실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덕훈내각총리는 화성지구에 솟구쳐오르는 창조물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원대한 리상을 내세운 우리 투쟁의 성스러운 증견자로 후세토록 빛을 뿌릴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당중앙에 영광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안아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승리를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 강 동 온 실 농 장 건 설 착 공 식 진 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참 석 하 시 어 몸 소 착 공 의 첫 삽 을 뜨 시 었 다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항도따라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발전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 우리 인민의 총성과 애국의 힘이 총분출되는 속에 평양시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온실농장건설이 시작되었다.

올해의 거창한 변혁과 발전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창조대전인 수도의 대규모 온실농장건설은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에서 무한한 힘과 열정을 배가하며 국가발전, 농촌진흥의 새로운 장을 확신성있게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웅략과 구상이 진군의 화살표, 변혁의 설계도가 되어 전개되는 중대한 사업이다.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천사만사를 철저히 복종지향시켜나가고있는 당중앙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기 위한 발전방략을 책정한 력사적인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강동지구에 대온실농장을 일떠세우는것을 중요건설과제로 결정하고 인민군장병들에게 또다시 영예로운 전투임을 하달하였다.

강 동 온 실 농 장 건 설 착 공 식 이 2월 15일에 진행되었다.

착공식장은 인민을 위한 우리 군대의 헌신적인 투쟁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게 될 장엄한 건설전역에 다시금 내세워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피뎠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달려온 인민군장병들의 무한한 전투정신과 충성한 기세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이 땅위에 인민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 문명부흥하는 강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위민헌신의 장정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와 총성의 마음을 담아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착공식연설을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준비해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건설대상이 드디어 착공의 시각을 맞이하였다고 하면서 당중앙의 특별명령을 피뎠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또다시 대규모 온실농장건설장으로 용약 달려온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

라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넉넉히 보장해주는 문제는 당에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가까운 몇해안에 기어 이 해결하자고 하는 최우선적인 중대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련포온실농장을 돌아 보시면서 앞으로 건설할 온실농장은 련포온실농장보다 지능화, 집약화수준이 더 높을, 한세대 더 발전된 온실농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에 새로 일떠세울 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 동 온 실 농 장 을 맞 추 고 영 양 가 높 은 잎 남 새, 열 매 남 새, 기 능 성 남 새 들 을 대 대 적 으

로 생산하는 실리가 큰 농장으로,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로동환경과 생활환경을 보다 훌륭히 갖춘 리상적인 농장으로 잘 꾸려 인민들의 식생활개선과 새시대 농촌진흥을 추동하는 거대한 동력이 되게 하자는 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또한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는 우리 군대의 전진기상은 당중앙전원회의 결정판철에 총결기한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줄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군인건설자들이 강동지구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선진성을 대표하는 본보기적체제를 마련듯이 일떠세우고 당중앙에 영광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삼가 드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착공식에서는 결의토론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리상실현을 위한 중요전구어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겨안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로서의 영웅성과 창조본매를 남김없이 펼쳐갈 신념과 의지의 구호들을 우렁차게 웨치였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강 동 온 실 농 장 건 설 착 공 을 기 념 하 여 몸 소 첫 삽 을 뜨 시 었 다.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려정우에 길이 새겨질 불멸의 화폭이 펼쳐진 착공식장은 장엄한 대건설의 시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뜻깊은 장소에 몸소 나오시어 대해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과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군인건설자들의 전투적열광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착공을 알리는 발파의 퇴성이 대지를 뒤흔들고 강동지구에 일어날 지랑찬 변혁상을 예고하며 오색령뚫은 축포탄들이 터져올랐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에 참가한 부대 주요지휘관

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부대, 구분대들을 창조와 위훈으로 잘 이끌라고, 모든 장병들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에서는 오직 전진과 창조만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의지를 가장 충실하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부대의 명예를 걸고 부과된 과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당의 믿음에 꼭 보답하라고 전투적으로 고무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총성과 애국의 군기를 높이 휘날리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의 전위에서 영웅적 위훈을 펼쳐갈 열의에 넘쳐있는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에게 오래도록 따듯이 손저어 주시였다.

본사기자

#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건 군 절 경 축 행 사 에 특 별 대 표 로 초 대 된 원 군 미 풍 열 성 자 들 을 만 나 시 고 기 념 사 진 을 찍 으 시 었 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월 14일 조선인민군 창건 75돐 경축행사에 특별대표로 초대되어 뜻깊은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낸 원군미풍열성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거행된 건군절경축행사에 참가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후손만대의 안전과 번영을 억척같이 담보하는 장엄한 군력시위를 가슴벅차게 체험하고 당중앙의 각별한 은총속에 한생의 추억으로 소중한 간직될 무상의 행복을 향유한데 이어 자나깨나 뵈고싶던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가장 큰 소원을 이루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걱정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응당한 본분을 한 자기들을 온 나라의 대경사로 거행되는 최상최대의 정치군사 축전에 특별히 불러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할말같은 사랑과 은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아버비를 우리러 감격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며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조국보위 초소에 혈연의 정을 잇고 평범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변심없이 혁명무력강화의 길에 순결한 량심과 애국정성을 다 바쳐가는 원군미풍열성자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혁명무력의 승승장구의 보무마디에는 당의 강군건설 로선과 군사중시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삶의 제일가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부국

강병의 대업실현에 밀거름이 되어준 진정한 애국자들의 값높은 공헌과 수고가 진하게 스며여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력한 국방이 없이 강국건설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원군이 제일가는 애국임을 잘 알고있기에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자식들을 모두 방선초소에 세우고 조국수호의 전호를 군인들과 함께 키킨다는 숭고한 자각으로 원군길을 묵묵히 걸고있다고 하시면서 원군미풍열성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원군미풍열성자들의 정신이야말로 가렬치절한 포화속의 전선원호걸을 해치던 1950년대 남강마을녀성들의 백절불굴하는 강인성의 산 술결이며 전후의 폐허에서도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나라의 울바자를 금성철벽으로 억척같이 쌓아올린 천리마시대 인간

들의 위대한 애국정신의 출기찬 계승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이런 정신은 마땅히 전열에 내세워야 하며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을 안아온 시련보다 장장 70년간 전승을 지켜온 시련이 더 값비싼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절대적힘을 백방으로 다지는 장로에 묻어온 이들의 열렬한 총심이 있어 위대한 전승의 70년력사를 빛내어올수 있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원군미풍열성자들이 앞으로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주체조선특유의 국공민 원군기풍을 더욱 승화시켜나가는데서 애국자의 전형으로서의 참된 삶을 변함없이 이어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감격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원군미풍열성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 답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청사에 특기할 전승 70돐 경축행사에 이 고마운 원군미풍열성자들을 또다시 특별대표로 초청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녕하기를 뜨겁게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축복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무적의 총대에 공화국의 존엄이고 생명인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자람이며 명예인 백전백승의 영웅군대 조선인민군의 강화발전을 위한 보람찬 원군사업에 심신을 강گری 바쳐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은 나라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명절기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각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태양상을 찾아 각계층 인민들은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삼가 드리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었다. 날마다 뵈고싶은 자애로운 그 영상을 우러르며 그리움에 불타는 마음도 아뢰이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 결의도 다진 공화국의 천만인민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는 인민의 마음은 흠모와 그리움의 노래가 되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졌고 판곡있는 예술단들의 다채로운 예술공연과 사진전람회, 중앙미술전시회 등도 진행되어 2월명절의 분위기를 더욱 돋구었다.

세월이 흘러도 절세위인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한없는 경모의 정이 더욱 강렬하게, 더욱 뜨겁게 분출하는 2월명절이다.

이 땅의 남녀로소 누구를 만나보아도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장군님이 못건디게 그림다고 격정에 겨워 이야기한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한 나라의 령도자이기 전에 인민의 아들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하여 심신을 초탈처럼 강그리 불태우시었다.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이 나라의 높은 산, 험한 령을 다 넘으시고 접쌍이는 정신육체적피로를 초인간적인 의지로



이겨내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아버지장군님의 열화와 같은 인민사랑의 자욱자욱은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그 위민헌신의 자욱자욱과 더불어 이 땅에는 얼마나 감동깊은 일화들이 수없이 태어났는가. 야전술옷과 폭잡, 제기밭에 대한 이야기, 려차집무실에 대한 이야기, 철령과 오성산과 관련한

이야기, 삼복철강행군과 눈보라 강행군에 대한 이야기...

떨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인민사랑의 전설들을 크나큰 격정속에 되새겨보는 이 나라 인민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외국방문의 길을 이어가실 때 었은 일이다.

달리는 려차에서 한 일군과 식사를 함께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른새벽부터 시간을 쪼개어가며 일을 하다보니 아침식사를 간단히 하게 되었다는 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일군은 눈물이 글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아무리 바빠도 너무 무리하지 말아주실것을 절절히 말씀드리었다.

그러는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될것같지 못하다고, 식사를 간단히 하는것 뿐 아니라 따뜻한 침대우에서 자

는 습관도 고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에게는 야전식이 제일이라고, 야전식생활은 자신의 몸에 완전히 록 배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야전식생활! 나라와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더없는 보람과 행복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시고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는 생활이었다.

바로 이런분이시였기에 나도

최고사령관이기 전에 인간이며 그 누구보다 생활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나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기때문에 개인적인 모든것을 희생하면서 쉬임없이 인민들을 위한 혁명의 길을 걸어나가고있다고 그리고도 절절히 교시하신것 아니겠는가.

하기에 온 나라 인민들은 뜻깊은 광명성절이 오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하루를 백날, 천날

맛

잡이로 분투하시며 야전일과로 수놓아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한생을 뜨겁게 되새겨보는 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해놓았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인민의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이처럼 아버지장군님께서 이인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생애의 전 기간 연 167만 4 610여리에 달하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전국의 1만 4 290여개 단위를 찾으시었다.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감동깊은 한생이 이 수자에 다 응축되어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군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같은 인생이었다고 할수 있다고, 장군님의 한생은 말 그대로 타고르는 불길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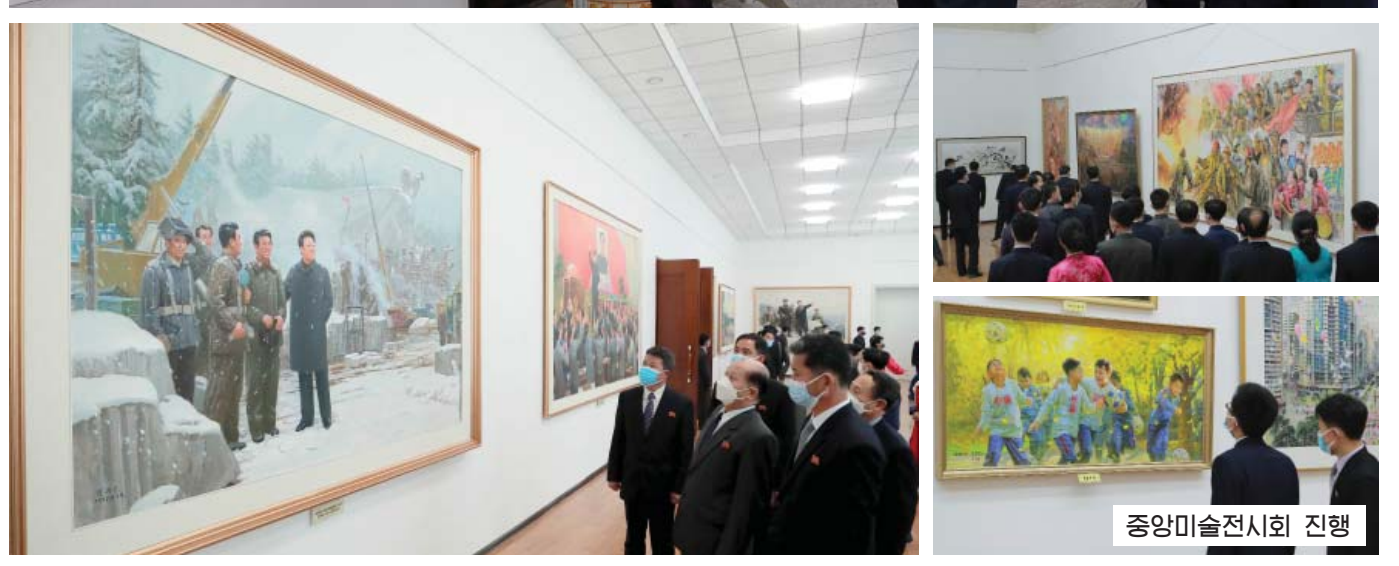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과 로고로 이어진 가장 열렬한 인민사랑의 한생이었다.

오늘 이 땅에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넋원을 꽃피우시려 끝없는 위민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시여 영원한 인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탄생 81돐을 성대히 경축



광명성절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각지에서 광명성절경축공연 진행





